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

목 차

■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다보스 포럼의 개요	1
2. 다보스 포럼이 본 2017년 세계 주요 이슈	3
3. 다보스 포럼의 대안	8
4. 시사점	1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다보스 포럼의 개요

제 47회 다보스 포럼은 2017년 1월 17일~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며, 시진핑 국가주석,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신임 사무총장 등 각 국 정재계 인사 약 3,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 400여개의 세션이 열리고, 그 중 절반이 이상이 사회적 통합과 인간개발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다보스 포럼이 보는 2017년 세계 주요 이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논의될 주제를 보면,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2017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융합을 통해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하고,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의 기본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최근 무역제한 조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건수가 2015년 10월~2016년 5월 월평균 21건으로 2009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기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등을 시사하고 있다.

(성장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성장 경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벤트들이 지속 등장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0년에 5.4%에서 2016년 3.1%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트럼프 노믹스 등장 등 경제적 효과가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

(포퓰리즘) 최근 EU 주요국에서는 이민자 여론 악화,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기존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EU-27개국 지니계수는 2006년 30.3에서 2015년 31.0으로 상승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이민자 문제, IS 테러, 브렉시트 현실화 등으로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로 1년 전에 비해 8%p 상승했다. 반EU, 반이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EU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폭력 및 충돌에 대한 경제적 손실) 2017년 글로벌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난민 위기, 대량살상 무기 등이 상위권으로 발표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이 크다. 파괴적인 지진, 강력한 스톰 등으로 2016년 자연재해 건수는 총 750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590건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이며, 2016년 전체 손실액은 1,750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테러, 범죄 등을 포함한 폭력 및 충돌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폭력 비용은 13.6조 달러로 세계 GDP의 13.3%를 차지한다.

■ 다보스 포럼의 대안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의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으로, 사회적·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은 불확실성 증가와 기존 시스템 붕괴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해 진솔하게 반응하고, 공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대안 제공에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결국,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등으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활성화, 더욱 포괄적인 시장 기반 시스템 구성,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협력 재강화 등이 2017년에 4대 핵심 리더십 과제라고 다보스 포럼은 말한다.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System Initiatives)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시스템 이니셔티브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2017년 다보스 포럼의 대안 >



자료 : 다보스 포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리하여 도식화함.

■ 시사점

2017년에도 여전히 경제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환경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불공정 사례 제소,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등 중장기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대내외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경기 안정화 및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1. 다보스 포럼의 개요

- (개요) 최근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안과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
 -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
 -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場으로 활용
 - 최근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저성장 탈피, 기상이변, 소득 불평, 국가 간 갈등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최근 다보스 포럼의 주제와 참여 인사 >

구분	주제 및 논의 내용	주요 참여 인사
2011 (41회)	- 새로운 현실 (New Reality) · 무역 불균형 · 신흥국과 선진국 경기 회복 격차 심화 · 노령화· 자원부족· 기술혁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2012 (42회)	-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 · 성장과 고용 · 리더십과 혁신 · 지속 가능성과 지원 · 사회·기술적 모델	비크람 팬티드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 책임자 피터 보서 셀사 대표 등
2013 (43회)	- 유연한 역동성 (Resilient Dynamism) · 글로벌 시스템 재정비 · 유연성과 민첩성 · 역동적인 지도자	대니얼 카너먼 프린스턴 명예교수(2002년 노벨경제학상)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2001년 노벨 경제학상) 등
2014 (44회)	- 세계의 재편 (Reshaping of the World) · '포괄적 성장'의 성취 · 파괴적 혁신의 포용 · 사회 내 새로운 기대들과의 조우 · 90억 명의 지속가능한 세계	리코 단쿠테 단쿠테 그룹 회장(나이지리아) 크리스 코필라크리슈난 인포시스 부의장 장셴칭 중국 공상은행 은행장 주디스 로딘 록펠러 재단 회장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외
2015 (45회)	-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 · 분권화된 세계화, 지역간 갈등 · 글로벌 저성장, · 에너지 헤게모니 · '비정상적 통화 정책의 정상화' · 이상기후, 청년실업, 소득 불평등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하리 바티아 주빌랜드 바티아 회장 캐서린 가렛 얼라인언스 트러스트 대표
2016 (46회)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4차 산업혁명의 정의 ·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 ·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 · 글로벌 공조 필요 강조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메이 바라 제너럴모터스 CEO 샤란 바로우 국제노동사무총장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티잔 티엄 크레디트 스위스 CEO 마르틴 술츠 유럽의회 의장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2017년 제 47회 다보스 포럼)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라는 핵심주제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전망

- 제 47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1월 17일 ~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
 - 안토니오 구테헤스 신임 유엔 사무 총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마윈 알리바바 회장,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등 세계 각국 정재계 인사 약 3,000여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
 - 총 400여 개 세션이 열리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사회적 통합 및 인간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임
 - 한편, '코리안 나이트' 행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지 않을 예정
-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될 2017년 10대 글로벌 리스크
 -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리스크로 '기상 이변(Extreme Weather Events)'를 선택
 - 영향력 측면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발표

< 47회 다보스 포럼의 의제 및 참여인사 > < 2017년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

구분	의제와 참여 인사	2017년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순 위	가능성 측면 / 영향력 측면
주요 의제	-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에 나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 논의할 예정	1	기상 이변 / 대량살상무기
		2	난민 위기 / 기상 이변
		3	자연재해 / 물 위기
		4	테러 공격 / 자연 재해
주요 참여 인사	- 안토니오 구테헤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 마윈 알리바바 회장 - 메리바라 GM CEO -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 조현상 효성 사장 -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등	5	데이터 범죄 / 기후변화 대응 실패
		6	사이버 공격 / 난민 위기
		7	부정 거래 / 식량난
		8	인공자연재해 / 테러 공격
		9	국가간 갈등 / 국가간 갈등
		10	국가통치구조 실패 / 실업/불완전 고용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 Report 2017.

2. 다보스 포럼이 본 2017년 세계 주요 이슈

①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 기술의 융합,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 확대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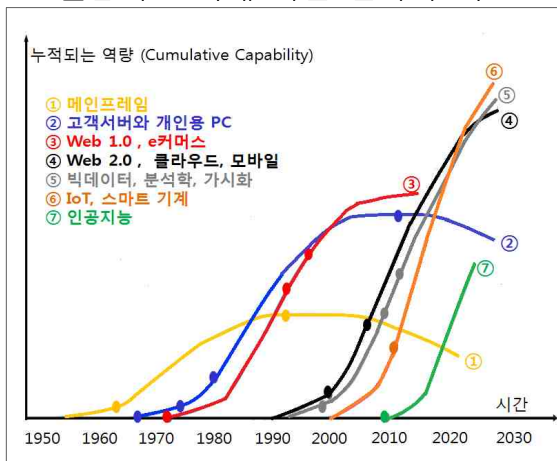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의 융합되면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IoT(사물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의 기술 결합으로 지수적 성장을 달성하면서 기술적 역량이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기술 진보는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임

- 기술력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경쟁구도는 심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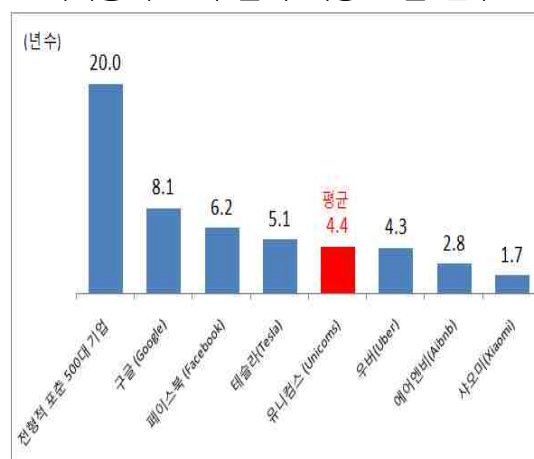
- 포춘 500대 기업이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데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림
- 하지만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신생기업들인 구글 8.1년, 우버 4.3년, 샤오미 1.7년 만에 시가 총액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

< 결합의 효과에 따른 변화의 속도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Jan, 2016.

<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 도달 년수 >



자료 : Accenture.

② 보호무역주의

○ 최근 무역제한조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

- 최근 G20 국가의 무역제한 조치 건수는 점차 증가

- G20 국가의 무역제한 조치 건수는 2015년 10월~2016년 5월 월평균 21건으로 2009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
- 한편 무역완화 조치 건수는 2015년 10월~2016년 5월 월평균 14건으로 2009년 수준으로 줄어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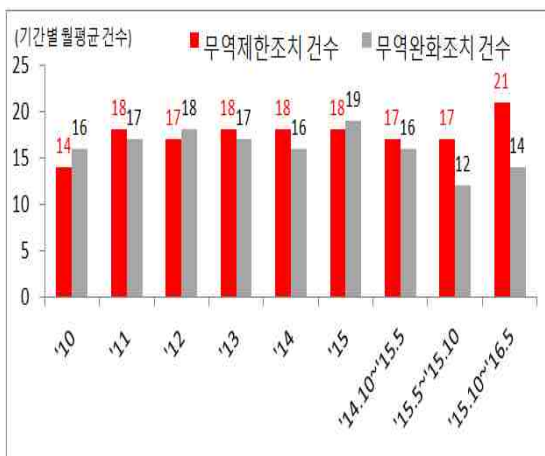
- 무역 제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미 시행된 무역제한 조치의 폐지 비율은 낮은 수준

- 2016년 5월까지 1,583 건의 누적 무역제한조치가 있었으나 폐지된 무역제한 조치는 387건으로 약 2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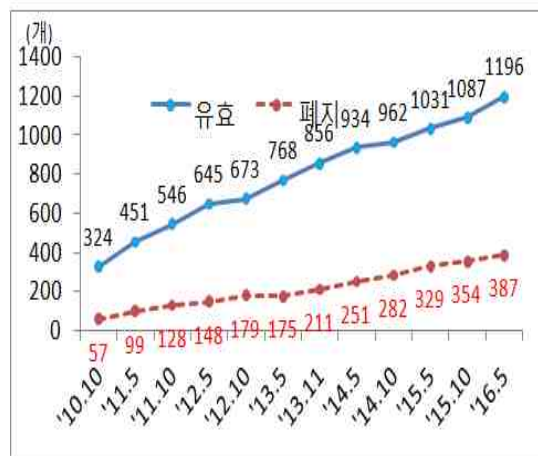
- 더욱이, 트럼프 노믹스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전망

-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기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등을 시사

< G20 국가 무역제한 및 완화 조치 추이 >



< G20 국가 누적 무역제한 조치 >



자료 : WTO,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June, 2016.

자료 : WTO,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June, 2016.

③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성장 경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벤트들이 지속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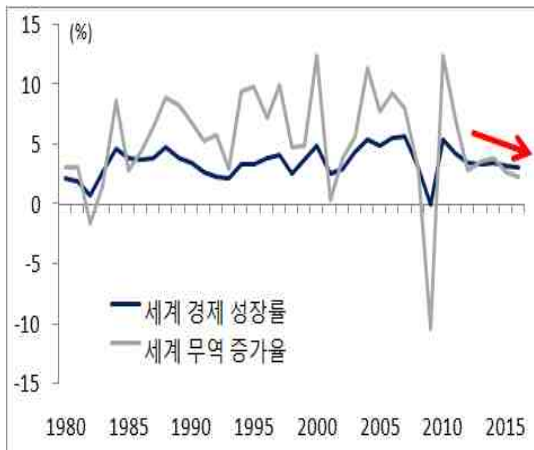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최근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0년에 5.4%에서 2016년 3.1%로 하락을 지속
- 세계 무역 증가율도 동기간 12.4%에서 2.3%로 하락세를 보임

- 브렉시트, 트럼프 노믹스 등장 등 경제적 효과가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변동성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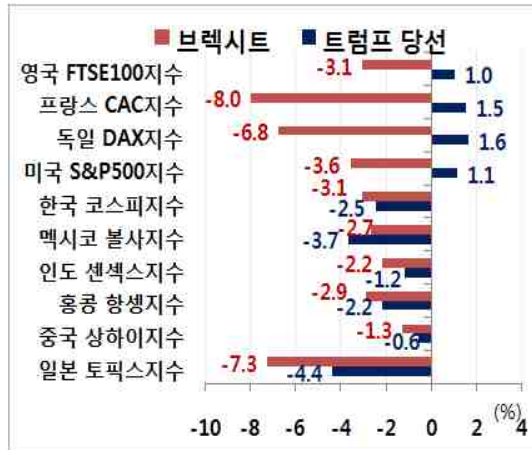
-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 집권기 기간 동안의 평균 미국 경제 성장률이 1.5%~0.4%기록할 것으로 전망¹⁾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

< 세계 경제 성장률 및 무역 증가율 >



자료 : IMF.

< 주요국 주가 지수 변동성 비교 >



자료 : Bloomberg.

주 : 브렉시트 당시는 6.23~6.24일간의 변동, 트럼프 당선은 11.8~11.9일간의 변동을 계산.

1) Moody's,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rump's Economic Policies, 2016.

④ 포퓰리즘

○ 최근 EU 주요국에서는 이민자 여론 악화,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기존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 세력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EU내 소득 불균형이 심화

· EU-27개국 지니계수도 2006년 30.3에서 2015년 31.0으로 상승

- 이민자 문제, IS 테러, 브렉시트 현실화 등으로 EU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면서 EU 통합이 약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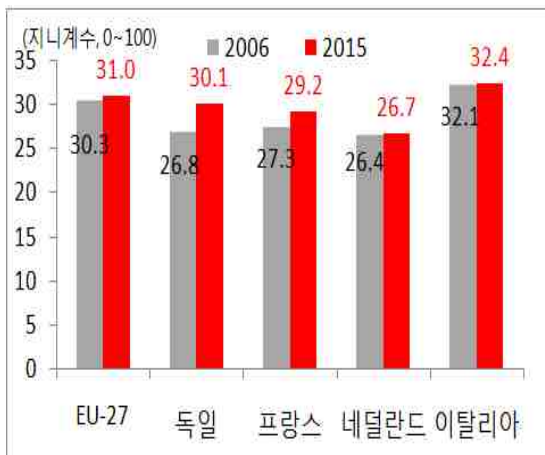
· 유럽연합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에 의하면, EU 체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로 1년 전에 비해 8%p 상승

- 반EU, 반이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면서 EU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

· 이에 따라 그리스와 영국에서 시작된 EU 체제에 대한 반발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재현될 가능성

< EU 주요국 지니계수 >



자료 : Eurostat.

< EU체제의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 >



자료 : Eurobarometer.

주 : 2016년 3월 조사 기준.

⑤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폭력 및 충돌에 대한 경제적 손실

○ 2017년 글로벌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난민 위기, 대량 살상 무기 등이 상위권으로 발표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이 발생

- 2016년에도 파괴적인 지진, 강력한 스톰 등 자연재해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

- 2016년 자연재해 건수는 총 750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590건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
- 전체 손실액도 2016년 1,750억 달러로 2015년 1,030억 달러에 비해 약 70% 증가

- 테러, 범죄 등을 포함한 폭력 및 충돌로 인해 국방비, 치안유지비, UN 평화 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

- 2015년 기준 전세계 폭력 비용은 13.6조 달러로 세계 GDP의 13.3%를 차지
- 각국 GDP 대비 폭력 및 충돌 비용이 가장 높은 상위 5대 국가로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남수단 순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규모 >
(건, 십억달러)

구분	발생건수 (건)	전체 손실액 (십억달러)
2016년	750	175
2015년	730	103
10년 평균 ('06~'15)	590	154
30년 평균 ('86~'15)	470	126

자료 : Munich Re NatCatSERVICE.

< 상위 5대 폭력 및 충돌 비용 국가 >
(백만달러 2015년 PPP기준, %)

구분	폭력& 충돌 비용	국가 GDP 대비 비중	
1	시리아	23,593	54.1
2	이라크	206,444	53.5
3	아프가니스탄	27,050	45.3
4	베네수엘라	79,613	42.8
5	남수단	8,213	35.2
세계		13.6조 달러	13.3

자료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The Economic Value of Peace 2016*.

3. 다보스 포럼의 대안

○ 핵심 의제 :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 (배경) 사회적·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
 - 세계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던 시스템의 약화, 정치적 불안 등으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신뢰가 점차 붕괴되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 토착민주주의 등으로 세계 경제는 하방 압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노동시장의 붕괴, 소득 격차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
- (정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존 시스템 붕괴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해 진솔하게 반응하고, 공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대안 제공에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
 - 문제의 폭과 복잡성을 경청하고 정직한 설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행동을 취하는 용기와 헌신이 갖춘 리더가 필요
 - 2017년은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보다 더 개선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
 -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등으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과 제도가 필요
- (2017년 4대 핵심 리더십 과제) 글로벌 경제 활성화, 더욱 포괄적인 시장 기반 시스템 구성,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제협력 재강화 등이 주요 핵심 과제
 - 소득 향상, 부의 재분배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통합을 중심으로 한 통화, 재정, 사회 보장 정책이 경제 성장의 뒷받침되어야 함

- 새로운 특징을 가진 순환 경제, 공유 경제 등을 포함하고 투명성, 사회적 책임, 시민 정신 등이 보장하는 포괄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구성
- 신속하고 파괴적인 변화를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 혁명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
- 세계는 공동체 일부이며, 서로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는 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

○ 다보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System Initiatives)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2017년 다보스 포럼의 대안 >



자료 : 다보스 포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리하여 도식화함.

- 소비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Consumption)

- 파괴적 기술은 비즈니스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소비 모델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
- 다양한 소비 욕구, 소비 형태의 다양화, 해당 산업의 신기술 적용 등의 직면한 도전 과제 해결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로 진화

-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 민간 공공 협력은 어떻게 인류에 이익이 되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깨달을 것인가?
 - 디지털 시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신뢰 기반의 법·제도 추진이 필요

-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Inclusion)**
 - 경제 성장과 형평성을 어떻게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나?
 - 사회적 대통합 기반의 경제 성장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

- **교육, 성 역할, 직장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Education, Gender and Work)**
 - 70억 명 이상의 인간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발전시킬 것인가?
 -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노동시장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필요

- **에너지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Energy)**
 - 어떻게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나?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이고 스마트하게 전환하고,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

- **환경과 천연자원 안보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 Security)**
 - 기후 변화 다른 천연자원의 문제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 성장 달성을 어떻게 이룰 것 인가?
 - 국제 공조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하기 위한 순환 경제 도입이 필요

- **금융과 통화 시스템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Financial and Monetary System)**

-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 대중 신뢰를 회복하고 규제 및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회복이 필요

- **식량난과 농업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 2050년까지 97억 명이 어떻게 먹고 살 것 인가?
 - 인구 증가에 대한 식량난 해결과 농업에 관련된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글로벌 식량 시스템 개선이 필요

- **건강과 헬스케어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Health and Healthcare)**
 - 2050년까지 97억 명 인구에서 건강한 삶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필요

-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 지속적으로 나오는 정보, 콘텐츠 및 데이터를 사회에 힘을 실어 어떻게 제공하고 즐겁게하고 교육 할 수 있을까?
 - 신뢰와 투명성이 바탕으로 정보가 교류가 되어야 하며, 혁신적인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육성이 필요

- **국제 무역과 투자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무역과 투자가 어떻게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을까?
 - 선진 무역과 투자 시스템 도입, 무역 촉진, 투자 정책 및 글로벌 가치 사슬을 위한 규범 수립, 디지털 트레이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범들이 필요

- **장기적 투자, 인프라, 발전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Long-Term Investing,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 세계는 1조의 인프라 투자 갭을 줄일 수 있을까?
 - 현재 4 조 달러의 인프라 수요에 비해 1 조 달러의 연간 적자가 발생하는데,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이 격차를 줄여야 함

- 이동 수단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Mobility)

- 포괄적, 안정적, 스마트한 국제 운송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나?
- 자율 주행 차량, 생체 인식 및 초경량 소재와 같은 기술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친환경, 안전강화 등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

- 생산의 미래 (Shaping the Future of Production)

- 생산 시스템의 변형이 어떻게 혁신, 지속 가능성 및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 4차 산업의 주요 기술들이 융합하고 연결되어 제조업이 진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생성, 경제 발전, 고용 등에 미칠 파급력은 클 것으로 예상

4. 시사점

- 2017년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가짐

- 최근 몇 년 간 지속 거론되는 기상이변, 난민 발생, 테러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로 변형되면서 사이버 공격, 데이터 범죄 등의 리스크들이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

- 2017년에도 여전히 경제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안정화에도 주력해야 함

첫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 이종산업 진입으로 기존 플레이어 위협,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 기업의 해당 진출 및 투자 성과를 반영하여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재선정 작업도 필요

둘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불공정 사례 제소,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등 중장기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조건에 맞추고, 기업은 통상 전문 인력 확충이나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
-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FTA 이행위원회, WTO TBT 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 및 해소 노력이 필요

셋째, 대내외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경기 안정화 및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운영시스템이 정책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가계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함
 -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켜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한 가계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 무엇보다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 민 연구 위원 (2072-6220, chungm@hri.co.kr)